

# 인문대 소식



발행처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주소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장전동)  
발행일 2017년 9월 전화 051-510-1501  
발행인 조강희 편집인 이선진  
디자인/제작 부산대학교출판부 전화 051-510-1932

## 학사 일정

2017. 9. 1(금) 18(월) ~ 22(금) 22(금)	2017학년도 제2학기 개강 2017학년도 전기 학위청구자격 종합시험 2017학년도 전기 학위청구자격 외국어 시험
2017. 10. 2(월) ~ 11(수) 12(목) 16(월) ~ 21(토) 17(화) 30(월)	2017. 2학기 수강취소(W) 신청 수업일수 1/3선 2017학년도 2학기 중간고사 2017학년도 전기 학위청구 심사용 논문제출 수업일수 1/2선 (일반휴학 마감)
2017. 11. 2(목) ~ 9(목) 15(수) ~ 17(금) 16(목)	2017학년도 겨울계절수업 수강대상자 복학신청 2017학년도 겨울계절수업 수강신청 수업일수 2/3선
2017. 12. 8(금) ~ 14(금) 15(수) ~ 21(목) 22(금) ~ 18. 1. 18(목) 22(금)	2017. 2학기 휴업일에 대한 지정보강일 2017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겨울계절수업 동기휴가 시작
2018. 1. 4(목) 13(토) ~ 22(월)	2017학년도 전기 학위논문 심사결과 보고서 및 최종논문 제출 2018. 1학기 국·영문 교수계획표 입력
2018. 2. 23(금)	2017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 Contents

02 | 미리내 단상 · 교수동정 03 | 교수동정 · 인문대 소식 04 | 학과·연구소 소식 07 | 신간소개

### 고현철 교수 2주기 추도식

故 고현철 교수 2주기 추도식이 2017년 8월 17일 10·16기념관 및 상남국제회관에서 열렸다. 추모사업회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전호환 총장, 소경애 여사 등 유족, 김영철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연합회 상임회장, 박홍원 교수회장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상곤 장관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추도식은 추도사, 추모공연, 추모영상물 상영, 추모공모전 당선작 발표 및 시상, 추도학술대회 순으로 진행하였으며 대학 민주화를 위한 고인의 송고한 뜻을 되새기는 자리가 되었다.



### 발전기금 출연 및 그림 기증

2017년 8월말 정년퇴임 하는 중어중문학과 김세한 교수는 인문대학 교수들의 해외문화탐방을 통한 학문의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1천만 원을 부산대학교 발전재단에 출연하였다. 또한 철학과 김용환 교수도 후학들에게 삶의 의미를 담아 전달하고자 차사발 그림(김양묵작) 2점과 부친이 소장하고 있던 해바라기(성백주 작) 1점을 새벽별도서관에 기증하여 학생들이 관람하도록 하였다.



칼국수 어떠세요?



장경철  
영어영문학과



며칠 전 점심때에 한 학생이 내게 물었다. “교수님, 오늘은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칼국수 어떠세요?”라고 대답했더니, 예상했다는 표정들 사이로 다른 학생이 내게 되물었다. “교수님 괜찮으시다면 오늘은 조금 다른 걸 드시는 건 어떠세요?”

지도학생들이 이제는 칼국수가 지겨운 모양이다. 그도 그럴 것이 작년부터 대학원 논문 지도를 마치고 찾았던 칼국수집만 해도 어렵잡아 10군데는 넘었던 것 같다. 여러 번 방문한 곳도 다수였던 점을 감안하면 학생들의 표정과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한동안 점심 메뉴로 유독 칼국수에 집착했던 이유는 개인적인 취향만은 아니었다. 3년 전에 작고하신 한 은사님의 영향이 더 컸던 것 같다. 그분은 남다른 칼국수 애호가이셨다.

은사님을 다시 뵈게 된 때가 2007년 내가 유학에서 돌아온 해였다. 친조카의 입원으로 한 병원을 찾았을 때 그곳에서 은사님을 우연히 뵈게 되었다. 처음에 마주쳤을 때에는 깜짝 놀라며 잠시 주저했지만, 이내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반가워했던 기억이 난다. 정년퇴임 직후 은사님은 혈암(일명 백혈병)을 앓고 계셔서 그 당시 정기적으로 내원하여 항암치료를 받으셨다.

은사님과 재회한 후 며칠 뒤에 청량리의 한 칼국수집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 은사님의 제안이었고, 추천하고 싶은 맛집 중의 하나라고 말씀하셨다. 그 이후로 서로 시간이 맞을 때면 서울에 있는 여러 칼국수집을 찾아 다녔다. 은사님 덕 근처에서 먹었던 손칼국수도 좋았고, 혜화동의 닭칼국수와 인삼주는 정말 으뜸이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이지만 옛날부터 국수는 무병장수와 긴 인연을 뜻했다고 한다. 국수 가락처럼 수명과 연분이 끊기지 않고 오래도록 지속되길 바라는 소망이 담겨있다고 한다. 그래서 혼례식, 회갑연 등의 경사에 잔치국수를 먹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는 것이다.

은사님의 건강과 나와의 인연도 국수처럼 길게 이어지기를 바랐다. 그래서인지 대구·경산의 한 대학에 교수로 임용이 되어 이사를 한 후에도 명절 때면 은사님께 안부 전화를 꼭 드렸다. 서울로 출장을 갈 때면 은사님과 미리 시간을 조율해서 함께 식사도 했다. 물론 주요 메뉴 중에는 칼국수도 빠지지 않았다.

비록 은사님은 소천하셨지만 지금도 그분의 영향을 받고 있는 듯하다. 이제는 은사님이 아닌 새롭게 만난 교수님들과 직원 선생님들, 학생들과 인연을 맺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특히, 부산으로 다시 직장을 옮긴 후에 오히려 칼국수 먹는 일이 더 많아진 것을 보면 그런 생각이 더욱 강하게 든다.

작년부터 지도학생들과 논문 연구를 한 후에 함께 칼국수를 먹으러 가게 되었는데, 이제는 일상이 되었다. 식사메뉴로 칼국수를 제안하는 것이 이제는 일종의 인사가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꼭 칼국수를 먹으러 가지는 않더라도 누군가가 “무엇을 드시겠어요?”라고 묻는다면 역시나 “칼국수 어떠세요?”라고 말할 것 같다. 그의 건강과 나와의 인연을 바라는 뜻에서 말이다.

정년퇴임 교수

● 중어중문학과 김세환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중국어를 전공한 후, 1980년 臺灣輔仁大學에서 중국문학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1993년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34년간 부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재직하면서 인문대학 부학장(1998.7~2003.3)을 역임하였다. 전공은 중국문학으로 『王維詩與中國傳統思想』 외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나의 한시 답사 이야기』 외 다수의 저서를 발간하였다.

● 사학과 채상식 교수



채상식 교수는 서울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에서 1978년 석사학위, 1987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1년 3월부터 2017년 8월까지 37년간 부산대학교 사학과에 재직하면서 인문대학 부학장, 한국민족문화연구소장 등을 역임하였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고려후기 불교사연구』(일조각, 1991), 『최해와 역주 즐고천백』(해안, 2013) 등이 있다.

● 철학과 김용환 교수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인도철학을 전공하였다. 1983년 3월부터 2017년 8월까지 34년간 부산대학교 철학과에 재직하면서 한국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불교사상과 그 의미를 학생들에게 일깨워주는 교육 활동뿐 아니라, 인도 철학 전공 박사 6명 외 많은 석사를 배출하는 등 후학 양성에 전념했다. 대외적으로는 2006년에서 2010년까지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묘엄불교문화재단’의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논문으로는 『法句經(Dhammapada)의 사상』, 『初期佛敎의 사상적 구조와 실천 수행-『테라가타』를 중심으로』, 『『숫타니파아타(Suttanipata)의 佛陀觀』, 『석굴암의 창건과 그 배경』 등이 있고, 저서로는 『요가와 禪』, 『불교예술과 미의식』, 『차와 선』, 『불교의 마음사상』이 있으며, 『佛敎의 大意』가 발간될 예정이다.

신임교수 부임

● 고고학과 조교수 이창희



부산대학교 고고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 한 후, 2010년에 The Graduate University For Advanced Studies(일본)에서 『環朝鮮海峽における粘土帶土器の實年代-金屬器交流の解析をめぐる前提として-』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일본국립역사민속박물관에서 연구하였으며,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일본학술진흥회에서 외국인특별연구원으로 재직하였다. 2015년부터는 동국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에서 조교수로 재직하였으며 대표논문으로는 『야요이문화상의 신구축』, 『변한사회의 중심지 이동론』 등이 있다.

### 인문대 교수 장기파견 및 연구년

● 장기파견

- 이종봉(사학과) 6개월(중국 : 2017. 2. 27 ~)
- 김용규(영어영문학과) 1년(영국 : 2017. 2. 18 ~)
- 김태호(언어정보학과) 1년(미국 : 2017. 1. 31 ~)
- 권경근(국어국문학과) 1년(대만 : 2017. 8. 1 ~)

● 연구년

- 김승룡(한문학과) 1년(2017. 3. 1 ~)
- 이재성(영어영문학과) 1년(2017. 1. 28 ~)
- 전광호(불어불문학과) 1년(2017. 9. 1 ~)

### 단신

● 박기성 교수(영어영문학과)는 한국언어과학회에서 주관하는 2017년 「전국학술대회」에서 우수 논문발표 및 학술발전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아 곡천학술상을 받았다.

● 정병연 교수(영어영문학과)는 「데이비드 매릿의 *Oleanna*에서 교육과 지적평등」 논문을 통하여 학술연구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아 현대영미드라마학회에서 우수논문상을 받았다.

## 인문대 소식

### 2017학년도 2학기 학과장 명단

2017학년도 제2학기 학과 및 협동과정의 운영을 총괄하게 되는 학과장 및 협동과정 전공주임 교수는 다음과 같다.

- |                   |                      |
|-------------------|----------------------|
| 국어국문학과장           | 김경연 교수 (2016. 1. 15) |
| 중어중문학과장           | 이지은 교수 (2016. 8. 1)  |
| 일어일문학과장           | 노선숙 교수 (2017. 3. 1)  |
| 영어영문학과장           | 전지현 교수 (2017. 1. 15) |
| 불어불문학과장           | 이송이 교수 (2016. 3. 1)  |
| 독어독문학과장           | 인성기 교수 (2017. 2. 1)  |
| 노어노문학과장           | 이용권 교수 (2017. 9. 1)  |
| 한문학과장             | 이준규 교수 (2017. 3. 1)  |
| 언어정보학과장           | 권순복 교수 (2016. 3. 1)  |
| 사학과장              | 이수훈 교수 (2017. 2. 1)  |
| 철학과장              | 정해왕 교수 (2017. 1. 1)  |
| 고고학과장             | 배진성 교수 (2015. 9. 1)  |
| 인지과학 전공주임         | 권순복 교수 (2015. 9. 1)  |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주임 | 이재봉 교수 (2017. 3. 1)  |
| 과학기술인문학협동과정 전공주임  | 주광순 교수 (2016. 9. 1)  |

### 2016학년도 인문대학 후기 박사학위수여자 명단

- | 허로천(중어중문학과) 「《說文解字》部首體系之《周易》原理研究」 (지도교수: 김세환)
- | 황해빈(중어중문학과) 「天文与人文之相应性研究」 (지도교수: 김세환)
- | 서혜진(영어영문학과) 「영어와 한국어의 음성·음운적 유사성에 따른 한국인 학습자의 영어모음 인지와 발화분석」 (지도교수: 이상도)
- | 양창아(철학과) 「쫓겨난 자들의 저항과, 함께 사는 삶의 장소의

- 생성: 한나 아렌트의 행위론」 (지도교수: 김준수)
- | 강소산(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전공) 「한국어 학습자의 말하기 효능감 연구」 (지도교수: 전은주)
- | 나영현(인지과학협동과정) 「대뇌 행위 시뮬레이션의 신경생리학적 기전 탐색 및 신경재활치료에의 적용」 (지도교수: 이동훈)

### 인문학 최고과정 입학식 개최

부산대학교 인문학 최고과정 제3기 입학식이 2017년 03월 08일 상남 국제회관에서 거행되었다. 제3기 입학생은 노환중(양산부산대학교 병원장) 등 23명이 입학하여 1년간 인문학 강의를 수강하게 된다.



### 인문학 최고과정 학술현장답사

부산대학교 인문학 최고과정 원우들이 2017년 5월 13일 경남 밀양 일대에 학술현장답사를 다녀왔다. 예림서원, 밀양향교, 영남루 등을 둘러보며 영남 지방 양반들의 옛자취를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 부산대학교 인문대학과 히로시마대학 문학부 공동 심포지엄 개최

2017년 6월 22일 부산대학교 소속 교직원 29명은 히로시마대학 문학부 및 문학연구과를 방문하여 연구자 간에 제4차산업혁명 하에서 요구하는 인문학의 발전 방안에 대한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제1부는 양 대학의 역사, 현황, 앞으로의 국제교류 전망 등에 대하여 히로시마대학에서는 大久保(오오쿠보) 문학부장이, 부산대학교에서는 조강희 인문대학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의견을 교환하였다. 제2부는 양 대학의 교수가 전공, 학과별로 분과를 나누어서 학과(전공)별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에 대한 의견 제시와 토론을 실시하였다. 또한 학교 시찰의 일환으로 학교식당, 도서관, 학과 도서관 등을 견학하였으며, 특히 도서관의 자동 대출 시스템 등 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많은 의견교환이 있었다.

## 고고학과

### ◎ 춘계답사

올봄에도 실시된 춘계답사에는 고고학과 전임교원 4명, 전임대우 강사 2명, 조교 및 대학원생 4명, 학부생 약 90명이 참가하였다. 올해는 2박 3일의 일정으로 전라도 일대를 답사하였으며, 여수선사유적공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마한문화공원, 국립광주박물관 등을 답사하여, 평소 보기 힘들었던 유적과 유물을 실경하였으며, 전라도 지역에서 활동 중인 여러 동문들을 만나 뜻 깊은 시간을 보내었다.



### ◎ 하계방학기간 중 현장실습

고고학과에서 매 방학기간마다 실시하고 있는 현장실습을 이번 하계방학기간에도 실시하였다. 이번 하계실습기간에는 총 14명의 학생들이 울산발전연구원(16학번 손정향, 전의진), 부산대학교박물관(07학번 정성윤, 11학번 설준수, 13학번 박민혁, 박종서, 14학번 손혜윤, 최인희, 15학번 이강아, 권도아, 이나은 16학번 이세림, 홍정원, 김제윤) 등에서 실습하였으며, 이 경험은 학생들이 후에 고고학자로서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 ◎ 박가영 동문(학부 07, 대학원 석사과정 10학번) Nature에 공동저자로 논문 게재



고고학과에서 학부와 석사과정을 마치고, 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유학 중인 박가영 동문이, 세계적인 과학 전문 주간지인 Nature vol. 547에 게재된 "Human occupation of northern Australia by 65,000 years ago"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는 한국고고학계에서도 흔치 않은 성과이며, 향후 박가영 동문의 학술 활동이 기대된다.

## 국어국문학과

### ◎ 학술현장답사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학술현장답사에서는 경북 안동, 경주, 포항 일대의 문학관 및 박물관, 문화유적 등을 둘러 보았다. 경북 지역을 살았던 문인들의 숨결을 느끼고, 아름다운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낮에는 답사를 통해 문학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저녁에는 신입생 · 복학생 환영회를 겸하여 교수와 학생의 유대감을 고취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 ◎ 제24회 부산지역 대학생 학술논문 발표대회

부산한글학회와 주최하고 부산광역시 후원하는 제23회 부산지역 대학생 학술논문 발표대회가 2017년 5월 27일 인문관 시습관에서 진행되었다. 부산지역 각 대학의 학생들이 국어학 · 국어교육 · 언어학 · 한국어교육 분야에서 연구한 논문을 발표했으며, 국어국문학과에서는 이수진(16) 학생이 「종결어미 (으) - ㄴ ㄹ, -는 ㄹ, (으) ㄹ ㄹ」의 문법화 및 의미연구를 발표하였다.



## 노어노문학과

### ◎ 금정산 등반

4월 28일 교수, 교직원, 그리고 유학생을 포함한 학부생들이 부산대 뒤편 금정산으로 등산을 갔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였고, 함께 산을 오르고 자연을 감상하면서 평소 잘 알지 못했던 선후배를 만나고, 교수님들과도 더욱 친밀해질 수 있었다. 이번 금정산 등산으로 학과 내의 단합과 사제지간, 선후배지간 화합이 잘 이루어졌으며, 신입생들도 다수 참여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불어불문학과

### ◎ 2017년 신입생 환영회

송정 일원에서 불어불문학과 신입생 복학생 환영회가 열렸다. 약 40여 명의 학생들과 교수님이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신입생과 복학생, 그리고 편입생들의 학교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사학과

### ◎ 순수연구회 활동(2017. 5. ~ 현재)

2017년 5월부터 대학원 석 · 박사과정생과 학부 연구회(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여성사) 소속 학생들이 공동 주제를 정하고 토론 및 세미나 활동을 2주 1회씩 진행 중에 있다. 이를 통해 학부생들의 대학원 진학을 높이고, 대학원생들에게는 좀 더 책임감 있고, 다양한 역사 공부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이다.

● 춘계정기답사(2017.3.29.~4.2.)

교수님, 조교, 학생 포함 총 110명이 중국 서안으로 정기답사를 떠났다. 3년에 1번 실시하는 해외답사의 일환으로, 중국 서안(西安)은 기원전부터 2,000년 이상의 역사적 다양성과 환경, 문화적 요충지이다. 또한 서안은 공간의 특성상 동서양 교류의 중심에 위치해 다양한 문화기술적 유산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서안 답사를 통해 사학과 학생들은 견문을 넓히고 앞으로 학과공부를 해나가는 데 있어 새로운 원동력을 얻을 수 있었다.



● 여름농활(2017.6.26.~30.)

사학과 학생회 '우리사이'를 중심으로 학부생 20여명이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으로 농촌봉사활동을 다녀왔다.

● 변광석 동문(79학번) 도서기증

한국민족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로 재직 중인 변광석 교수는 조선시대 전공자로서, 본인이 소장하고 있는 고문헌, 단행본 등 약 400여권의 도서를 학과로 기증하여 대학원 및 학부 학생들의 학술적 발전에 기여하였다.

영어영문학과

● 신입생 환영회

2017년 3월25일~26일에 걸쳐 양산 BTC아카데미에서 2017학년도 학부 신입생환영회를 개최하여 학부 신입생들과 재학생, 교수님들과 졸업생들이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 동문장학금 수여식

2017년 1학기 영어영문학과 동문장학금 수여식이 개최되었다. 2010학년도 1학기부터 매학기 영어영문학과는 동문회 발전기금 출연으로 학부 각 학년의 성적우수자를 선정, 100만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 대학원 동계세미나

2017년 2월 17일 상남국제회관에서 2017년 영어영문학과 대학원 동계세미나를 개최하여 전공별 학위 청구논문예비발표회와 함께 석·박사 신입생 환영회를 열었다.



● 미국 외교관 Mark Canning 초청 강연

영어영문학과는 4월 20일 인문대 교수연구동에서 50여명의 학생과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미국대사관 Mark Canning씨의 특강을 개최했다. 마크 캐닝 외교관은 'My Experiences in Korea and around the World'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 후, 재학생들과 공공외교, 외교관의 삶, 한미관계, 주한 미국대사관 주관 프로그램 등에 대한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 BK21플러스사업단 국제코미디페스티벌과 협약

BK21 플러스 글로벌 영상번역 창의인재 교육·연구 혁신사업단은 5월 12일 부산 코미디페스티벌과 문화콘텐츠 전문 인력 양성 및 번역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언어정보학과

● 신입생 환영회

언어정보학과는 2017년 3월 18일 ~ 19일 송정으로 1박 2일간의 신입생환영회를 다녀왔다. 50여명의 신입생과 재학생, 졸업생 그리고 교수님들이 참여한 신입생환영회에서 학생들은 친목을 도모하고 추억을 만들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일어일문학과

### ◎일본문화제 개최

일어일문학과 행사 중의 단연 으뜸인 새뜨맛이를 3월 24~25일 양일간 진행하였다. 장기자랑, 방놀이, 달빛 데이트 등을 통한 신입생과 재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교환 및 친밀감 형성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간이었다. 그리고 4월 27일에는 '제 1회 2017학년도 일본문화제'를 운주정에서 개최하였다. 일본어를 사용한 장기자랑 경연 및 일본 관련 상식 퀴즈를 진행하였는데 재학생들의 활발한 참여가 돋보였으며 재학생들의 일본어에 대한 흥미를 고취시키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 중어중문학과

### ◎중문인의 한마당

중어중문학과에서는 4월 7일~8일 순천 일대를 답사하였다. 신입생과 재학생, 김세환교수님, 이지은 교수님, 조교 등 56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답사를 통해 교수와 학생이 교류하고, 신입생과 재학생이 서로 화합하는 계기가 되었다.



## 한문학과

### ◎춘계답사

한문학과에서는 지난 3월 10~11일 경남 김해 일대로 춘계답사 겸 신입생 환영회를 다녀왔다. 분산성, 수로왕릉, 국립김해박물관, 수로왕비릉 등 김해 일대의 문화 유적지를 답사하고 저녁에는 신입생 환영회 행사를 개최하였다. 행사를 마치고 선배와 후배, 그리고 교수님들과 함께 학교생활, 진로, 교우관계 등 수업 시간에 다하지 못했던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 해를 시작하며 한문학과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의 단합을 다지는 소중한 자리였다.



### ◎제19회 효원성년제



한문학과에서는 매년 5월 '성인의 날'에 즈음하여 전통적인 형식을 갖춘 '효원성년제(曉原成年祭)'를 실시하고 있다. 부산대학교 신입생과 재학생들이 성인이 된 것을 축하해 주는 자리이다. 올해 19회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한국음악학과와 공동주관

으로 개최되어 더욱 뜻깊었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어른으로서, 자성인으로서 갖추어 할 사회적 책임감을 다짐하는 뜻 깊은 자리이기도 하다. 올해 성년제에는 사전 신청을 받아 선정된 부산대 한국음악학과 학생들과 한문학과 및 기타 학과 재학생 100여 명이 행사에 참가해 전통의식을 치렀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음악학과 학생들의 공연이 더해져 전통관례식의 멋과 흥을 돋우었다.

### ◎제5회 해외학자초청세미나



2017년 5월 16일(화)에 마키즈미 에츠코(牧角悦子)를 초청하여 오전, 오후 2회에 걸쳐 '고전과 그 해석 -詩經과 五言古詩를 一例로-'라는 제목으로 해외학자초청세미나를 열었다.

## 인문학연구소

### ◎2017년 8월 연구단 학술세미나 및 워크숍

인문학연구소는 8월 24일, 25일 인문한국(HK) 고전번역+비교문화학 연구단 학술세미나 및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모임은 본 연구단의 연구 성과를 검토하고 향후 아젠다와 연구단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0년간 연구단이 추진해온 세부 아젠다와 개별 연구자별 성과에 대해서 평가·토론하고, 전체 연구단 차원에서 아젠다의 성취에 대해 평가하였으며 연구단의 전반적인 운영 계획 및 발전방안에 대해 토의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연구 사업 신청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였으며 변화하는 연구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단 내부에 역량강화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 점필재연구소

### ◎2017 여름, 밀양시민동양고전아카데미

점필재연구소에서는 밀양문화관광연구소와 함께 문화재청이 주관하는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밀양시민동양고전아카데미>를 개최하였다. 현실의 공간이지만 신선세계를 동경하는 마음으로 투사된 단양팔경, 해외여행 가운데 보다 특별했던 중국 사행길, 근대 일본인의 눈에 비친 울산의 모습, 그리고 점필재학단의 스승과 제자가 걸었던 학문 기행으로서의 지리산이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함께 한 길들이다. '선인들과 함께 걷는 여행의 길, 그리고 배움의 길'이라는 주제의 고전아카데미를 통해 인간과 삶, 그리고 역사에 대한 인문학적 통찰이 깊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확신한다.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출판

연구소 학술지 『한국민족문화』 62집, 63집 발간(2017. 2. 28., 5. 31.)  
HK연구단 학술지 『로컬리티 인문학』 제17호 발간(2017. 4. 30.)

● 학술행사

2017년 공동학술심포지엄: 호적으로 본 경남지역민들의 존재 양상

- 일시: 2017. 03. 03. • 장소: 부산대학교 인덕관 소회의실
- 발표: 이정수(동서대) 외 2명

로컬리티의 인문학 제4회 학문후속세대세미나

- 일시: 2017. 03. 17. • 장소: 부산대학교 인덕관 대회의실
- 발표: 송주란(부산대) 외 3명

2017년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와 공동학술대회

『『유식이십론』과 유식사상』

- 일시: 2017. 05. 27. • 장소: 부산대학교 인덕관
- 발표: 구미숙(부산대) 외 5명

● 초청강연회

『막스베버의 <직업으로서의 정치>』

- 일시: 2017. 04. 27. • 장소: 부산대학교 사회관 302호
- 강연: 이철호 원장(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헌법개정과 한국정치의 미래』

- 일시: 2017. 05. 01. • 장소: 부산대학교 국제관 B101호
- 강연: 최인호 국회의원

● 시민강좌

“길 위의 인문학”

- 2017. 03.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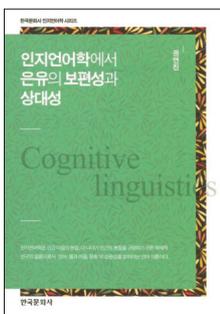
“세상을 여는 아름다운 인문학”(부산광역시립시립도서관과 공동)

- 2017. 04. 04. 원전을 베고 자는 사람들의 생활 경험
- 2017. 04. 11. 귀화인 마을 - 기억과 풍경 등

“『대전일기』와 대전마을”

- 2017. 04. 06. ‘송나구’하고 ‘갈밭비’가 뭘지 아냐?
- 2017. 04. 13. 연개를 엮고 용보름을 튼다 등

신간소개



인지언어학에서 은유의 보편성과 상대성  
권연진 | 한국문화사 | 2017

이 책은 은유를 단순히 언어학적 관점에서의 논의를 넘어서서 사고나 개념의 차원으로 보는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의 개념적 은유 이론에 바탕을 두고 논의한다. 즉, 우리의 사고 과정은 대부분 은유적이며, 하나의 경험 영역을 다른 경험 영역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사고하는 과정으로 간주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영어와 한국어의 신체어, 감정어, 대중가요에서 나타나는 은유적 표현의 개념화 양상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은유의 보편성과 상대성 그리고 은유, 문화, 사고와의 상호 관련성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타자와 욕망

문성원 | 현암사 |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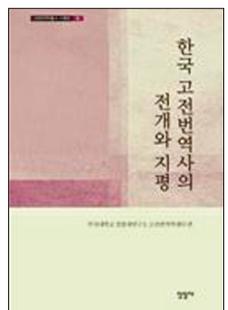
『타자와 욕망』은 레비나스의 철학적 사유에 깊이 있게 들어간다. 레비나스 철학에서 초점은 갈등을 동일자의 지평에서 해결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타자와의 관계를 환기함으로써 그 지평과 갈등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변화를 가져오는 데 있다. 레비나스는 우리에게 익숙한 테두리 내로만 눈을 돌려서는 그 내부의 문제를 풀어가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시킨다. 삶의 지평을 경쟁과 계 산 따위로 한정해서는 갈등과 전쟁이 되풀이되는 역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얼핏 우리가 당연시할 수 있는 관계들에 갇혀 있지 않다. 우리에게 익숙한 영역의 밖, 그 너머와의 관계가 우리 삶의 더욱 근원적인 차원이다. 타자와의 관계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무대인 존재의 규정들에 앞서며 존재 세계의 바탕에 놓인다.



문화수려집

나카오 외 지음, 김승룡, 김임숙 옮김 | 지식음반 드는지식 | 2017

『능운집』에 이어 일본 헤이안 시대에 왕명으로 엮은 한시집이다. ‘문장이 화려하고 빼어나다’는 제목의 뜻과 같이 『능운집』의 작품보다도 한층 더 문학적이고 서정적인 시들을 만날 수 있다. 국내 최초로 소개되는 이 작품에는 발해 사절과 주고받은 한시가 여러 수 실려 있어 더욱 흥미롭다.



한국 고전번역사의 전개와 지평

부산대 점필재연구소 고전번역학센터 편 | 점필재 |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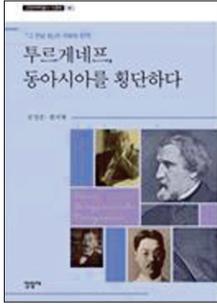
『한국 고전번역사의 전개와 지평』은 점필재연구소의 HK(고전번역+비교문화학)사업단의 고전번역학 총서의 중간 결산에 해당하는 결과물로 한국의 고전과 번역을 주제로 하여 기존 연구 분야와 다른 시각의 통사(通史)를 시험적으로 제안했다. 한글 창제와 국문 칙령을 기준으로 “구결과 이두”, “한글창제와 언해”, “국문번역”의 세 가지 기준으로 한국의 고전번역에 대한 통사적 시대구분을 제시했다.



한국 고전번역자료 편역집(전2권)

이태희 외 3명 편역 | 점필재 | 2017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이르는 기간에 생산된 고전번역 자료 가운데 유·불·선의 경전, 실용서, 서구 분과학 문과 근대문학 자료까지 조사하고 대표성을 가진 것들을 선별해 일정한 경계를 제시했다. 1권은 조선시대의 언해를 중심으로 유교와 불교 경전, 문학, 법률, 의학, 군사학 등 다양한 번역 자료를 총망라하여 편제하고 번역했다. 2권은 대한제국시대와 일제강점기의 언론에 나타난 번역 자료를 근대 국가의 모색과 세계문학의 수용이라는 두 가지 논점에서 편집하고 번역했다.



## 투르게네프, 동아시아를 횡단하다

손성준·한지형 | 점필재 | 2017  
투르게네프의 장편소설 『그 전날 밤』이 러시아와 일본의 극작가에 의해 각기 다른 연극용 각본으로 각색되는 양상과, 그중 일본판이 식민지 시기 조선으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변용되는가를 고찰한 책이다. 본서는 하나의 문학 텍스트가 다른 공간에서, 혹은 동떨어진 시간대에서 재맥락화되며 새로운 의미들을 창출해나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재현했다. 이 번역에 대한 본격적 연구는 이 책에서 최초로 시도된 것이며 러시아어 원문과 한국어, 일본어의 상세한 비교분석을 제시하였기에 그 의미가 크다.



## 중국 사상과 대안 근대성

이종민 | 현암사 | 2017  
『중국 사상과 대안 근대성』은 왕후이의 중국 사상과 대안 근대성을 논의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왕후이의 『근대 중국 사상의 흥기』 읽기와 쓰기를 다루고 있다. 고대에서 근현대에 이르는 방대한 역사 문화, 사상사와 사회사를 연계한 복잡한 시각, 서구 및 일본 학술의 성과와 중국 원전의 포괄적 인용 등으로 해석의 난제가 가중되어 완독 자체가 쉽지 않은 『근대 중국 사상의 흥기』를 열 가지 주제로 나누어 원의에 충실하게 해설했다. 송대 사회와 초기 근대의 의미, 유학과 도덕평가 방식의 전환, 예악과 제도의 분화, 송명 유학과 천리적 세계관, 명말 청초 유학과 신제론, 청대 고증학과 경사지학, 청대 금문경학과 제국의 합법성, 청말 유학보편주의와 대동 세계, 근대성 문제와 청말 사상의 의의, 『흥기』 이후 왕후이의 사상 실천의 길을 다뤘다.



## 생태와 대안의 로컬리티(로컬리티 연구총서 17)

공윤경 외 8명 | 소명출판 | 2017  
생태 위기와 관련하여 '로컬'에 주목한 이유는 로컬이 불균형 발전, 경제 침체, 빈부 격차, 계층 간 갈등 등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폐해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체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가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로컬리티 담론과 인문학(로컬리티 연구총서 27)

문재원 외 7명 | 소명출판 | 2017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로컬, 로컬리티의 개념을 보다 정교하게 정의하고, 타 분과영역에서의 로컬리티 개념과 로컬리티 인문학의 로컬리티의 개념의 차이, 연구 맥락의 확장 양상 등의 고찰과 함께 로컬리티인문학 연구단의 인문적 비전을 제시에 대한 종합적인 성찰을 통해 로컬리티 연구가 인문학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수사적 선언에 머물지 않고 로컬리티 개념이나 방법론을 인문학적으로 재개념화하면서 로컬리티 인문학의 영역을 확장하고자 했다.



## 대천일기 1·2

양홍숙 외 4명 | 부산대학교출판부 | 2017  
1954년부터 1962년까지의 농사일기와 일기를 쓴 윤희수옹의 일상이 담긴 1956년부터 1971년까지의 일기로 동시대를 살아간 대천마을 사람들의 일상이 나타나고, 마을 밖 소식과 한국 근현대사가 담겨있다. 농촌의 일상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여겨져 온 것에 대한 반성과 함께 60년 전 오늘을 살아간 사람들의 삶은 그 끈끈한 생명력과 꿈틀거림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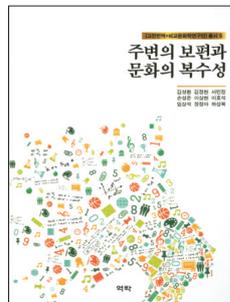
## 세계의 시장을 가다(로컬리티 교양총서 5)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편 | 북코리아 | 2017  
인문한국연구소협의회와 ㈜네이버가 공동 기획하고 연구소 HK연구인력이 집필진으로 참가한 교양 총서로, 2014년 12월 18일부터 총 24회에 걸쳐 네이버캐스트에 연재된 글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시장이라는 일상의 공간에서 분출되는 각종 특유의 로컬리티를 전문적이고 풍부한 비주얼 자료를 통해 전달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이 당면한 문제들을 독자들과 같이 고민하고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 주자학의 고전, 그 조선적 해석과 실천

부산대 점필재연구소 고전번역학센터 편 | 점필재 | 2017  
주자학을 사상적 공간으로 삼아 신라나 고려와 다른 질서를 세웠던 조선을 바로 보기 위해 주자학이 현재의 관점에서 소환되어야 한다는 의도에 따라 주자학의 고전이 조선에서 해석되고 실천된 양상을 경학, 한문학, 철학, 역사학, 어학의 다양한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구성하고자 했다. 주자 자신의 목소리로부터 조선조 학자들의 학문적 해석과 실천 과정에서 산출된 고투가 담겼다는 점에서 조선 주자학의 역사적 지평이 이 책을 통해 드러날 것이다.



## 주변의 보편과 문화의 복수성

김성환 외 8명 | 역락 | 2017  
『주변의 보편성과 문화의 복수성』은 [고전번역+비교문화학연구단 총서] 5권으로 기획된 책이다. '주변의 보편과 문화의 복수성'이라는 큰 주제 하에 구성된 글들이다. 유럽적 보편주의를 넘어서기 위해 주변의 보편성과 보편의 주변성을 검토하고 다양한 문화적 보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보편적 보편의 확보를 위한 주변의 연대를 다루고 있다.